



미국 정치권 발 부담요인에도 주의

1. 미국 대법관 지명 논란이 등장

- 트럼프가 지난 18일 사망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음
-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 미국 대법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합헌 판단을 진행 중에 있음

2. 양 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사안

-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수적 인사를 지명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바마 케어의 부활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만큼 대법관 인선을 양보할 수 없는 상황
- 미국 유권자들도 코로나 사태 이후 보건 복지, 대법관 인선, 코로나 대응 등의 사안을 투표시 주요 관심 사안으로 보고 있음

3. 확대되고 있는 미국 정치권 발 불확실성

- 현 시점에서는 대법관 지명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해당 인선을 두고 양 당간의 대척점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
- 21년도 예산안, 추가 경기 부양안 등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시점임에도 이를 저해하는 사안이 추가된 것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



주식시장 투자전략

1. 미국 대법관 지명 논란이 등장

지난 18일 미국 연방 대법관 중 한명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트럼프는 21일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의 발생으로 미국의 정치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바이든은 당선 시 트럼프의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공화당은 16년 당시 대선이 10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오바마의 대법관 지명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빠른 인선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의 정치적 판단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 대법원이 하는 일부터 살펴 보면, 미국 대법원은 사회 갈등, 정치적 쟁점 등의 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 낙태 합법화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오바마 케어 무효 선언에 대한 판결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의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사망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물이었으며 현재 5:3으로 보수 성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트1] 미국 대법원의 역할과 구성. 현재 보수 성향의 판사들 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

항목	내용
역할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제시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선별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제시 한국의 헌재와 대법원 합친 역할
구성/임명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자발적 사임이나 은퇴를 제외하면 종신직 대통령 지명 후 상원에서 인준절차 진행(상원 과반 찬성)
현재 구성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 중도/보수) 클래런스 토마스(보수) 새뮤얼 알리토(보수) 닐 고서치(보수) 브렛 캐버노(보수) 스티븐 브라이어(진보) 소니아 소토마요르(진보) 엘레나 케이건(진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트럼프가 곧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두 인물

Amy Coney Barrett	Barbara Lago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 7연방고등법원 판사 - 종교적 원칙 주의자 - 자녀 7명 중 2명 아이티에서 입양 - 낙태 반대론자 - 오바마 케어 반대 - 2018년 트럼프가 브렛 캐버노를 대법관으로 지명할 당시, 배럿은 긴즈버그를 대비해 남겨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 11연방고등법원 판사 - 쿠바 망명자의 후손이며 플로리다주 대법관 출신 - 이민자 문제, 총기 소지 이슈 등에 있어 보수 성향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 대선에서 트럼프의 약점인 라틴계와 경합주인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런닝 메이트 역할로 활용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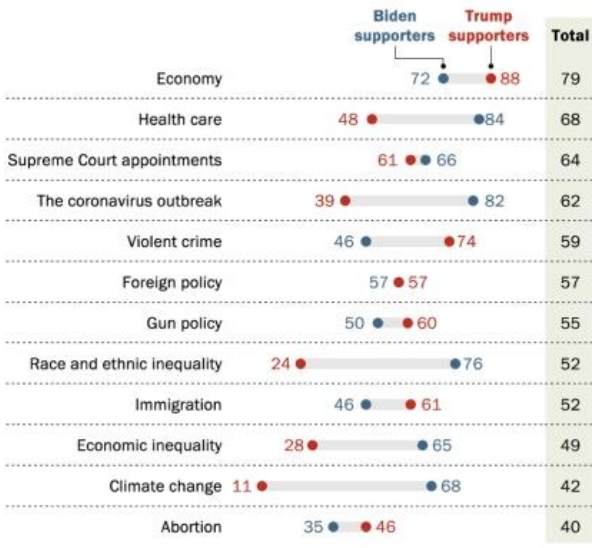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2. 양 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사안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진보적인 판결을 제시하는 경향도 있어 4+1:3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결국 트럼프는 여기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투입해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 결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 군은 표에 정리해 둔 바와 같이 모두 여성이고 제 2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라고아 판사의 경우 이민자의 후손이자 경합 지역인 플로리다주 출신이다. 즉, 본인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런닝메이트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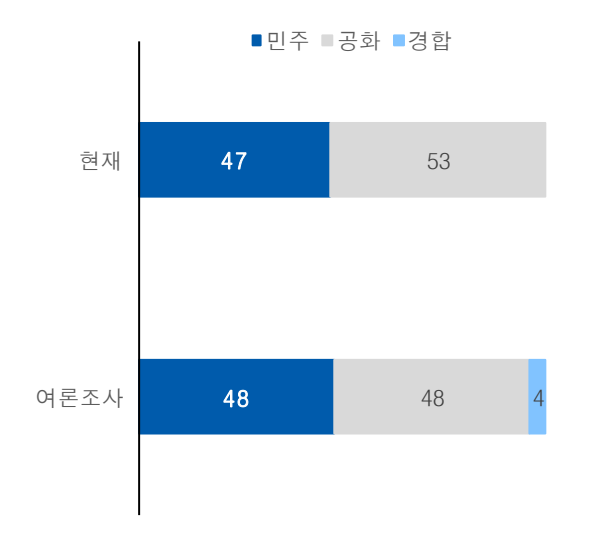
한편,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대법관의 임명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최대한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유권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PEW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참고해 보면, 대선과 관련해 어떤 사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위가 경제(79%), 2위가 헬스케어(68%) 그리고 대법관 지명이 3위(64%)로 조사됐다. 이를 감안하면 보수성향 대법관의 임명을 저지함으로써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차트3] 대선과 관련된 유권자들의 관심사, 경제와 헬스케어, 대법관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조사



자료: PEW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상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 270toWI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확대되고 있는 미국 정치권 발 불확실성

사실 트럼프가 대법관 후보를 지명한다고 해도 대선 전 당장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지명 후 상원의 검증 및 청문회 절차 그리고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화당 내의 반대 기류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1/3의 상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화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들도 찾아볼 수 있어 당장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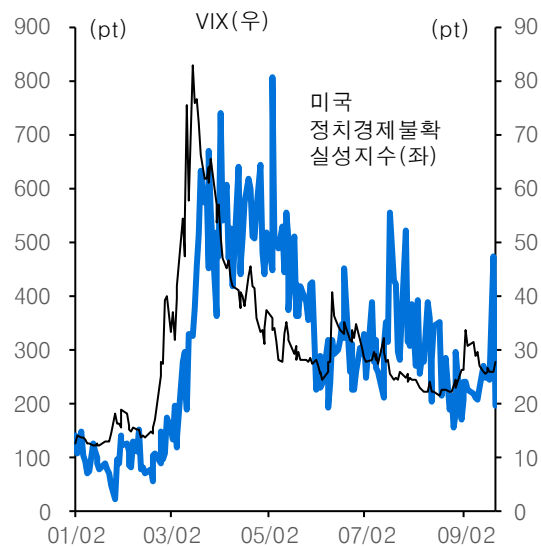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법관이 될지 결과론적인 측면보다, 동 사안을 놓고 양당간의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와 공화당은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카드로 이를 활용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핵심 공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 만큼 물러설 수가 없다. 서로 양보하기 힘든 쟁점 사안이 등장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21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고 있고, 통화정책이나 매크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증시 입장에서 당장 기대 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 소재인 경기 부양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서로 물러서기 쉽지 않은 정치적 대척점이 추가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된다.

[차트5] 하락하고 있는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과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경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양 정당간의 첨예한 대립은 정책 측면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존재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